

6월 5일(금)

성령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요한복음 20:22)

기도

아버지 하나님. 세례의 물로 저희를 당신의 이
미지 따라 빚으시고 성령 불어 넣으사 생령으
로 만드셨나이다. 세례 받던 날 당신의 아들께
서는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저희에게 보
여주시며 숨을 내쉬어 성령을 불어 넣으셨나이
다. 세례 때 오순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
람같은 소리와 함께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나이다. 세례 때 하늘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증거해 주시고 비둘기 형상으
로 성령을 내려 주셨나이다. 옛 예언자에게 악
속하신대로 그렇게 저희에게 새로운 영, 성령
을 주셨나이다.

성령이여 저희를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
옵소서. 아들의 거룩한 몸 되게 하옵소서. 그리
하여 세상을 향한 아들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
옵소서. 사제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의 아
픔 지고 아버지 앞에서 중보기도하게 하옵소서.
왕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힘을 다해 세상 섬기
게 하옵소서. 예언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진리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6일(토)

은혜로 맛보는 거룩한 삶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누가복음 10:27~28)

기도

사랑의 법을 행하면 살리라 하셨나이다. 당신
은 본질이 사랑이시니 저희가 당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폭과 깊이와 넓이만큼 당신과 생명을
알고 맛보게 될 줄 믿나이다. 생명에 이르는 법
이 이렇게 은총의 선물로서 계시되었으나 죄로
인해 저희들 미움과 다툼과 무관심의 무덤에
누워 있었나이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 저희 불러 주시고, 죄의 옷
벗기셨으며, 마귀를 부인하게 하시고, 아들 예
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 주셨나
이다. 그의 피로 죄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성령
의 전 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당신께서 명하신 사랑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
셨나이다. 은총으로 율법을 행하는 저희의 열
굴과 삶에 당신의 형상 회복되어 해같이 빛나
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 세상으로
당신의 영광 찬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7일(주일)

평신도주일 예배문

[하나님께로 모임]

전주	반주자	
* 입례송	36장(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함께
* 예배로 부름과 기원		집례자
* 경배찬송	9장(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다함께
* 말씀교육	시편 4(교독문 3번)	다함께
* 삼위영가	4장(성부 성자와 성령)	다함께
오늘의 기도	권사 대표	
주님의 기도	다함께	
기도응답송	찬양대	

[말씀의 선포]

성경봉독	
(1) 구약의 말씀 : 예레미야 29:11	집사 대표(여)
(2) 신약의 말씀 : 골로새서 1:23	집사 대표(남)
(3) 오늘의 말씀 : ()	설교자
찬양	찬양대
설교	설교자

[감사와 응답]

합심기도		말은 이
1. 세계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남선교회 회장)		
2. 감리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위하여 (여성교회 회장)		
3. 평신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청장년선교회 회장)		
신앙고백		다함께
찬송	213장(나의 생명 드리니)	다함께
* 봉헌	50장(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함께
* 봉헌기도		말은 이
평화의 인사		다함께

[세상으로의 파송]

교회소식	집례자	
* 찬송	501장(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다함께
* 파송의 말씀		다함께
* 축도		목 사
후주		반주자

(* 표시한 곳은 일어선다)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

제 37회 평신도주일

기도문, 예배문

기도 주간 2015. 6. 1(월) ~ 6. 6(토)

평신도주일 2015. 6. 7(주일)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결의에 의하여 감리회본부에 평신
도국을 두고 지방에는 평신도부를 두어 매년 5월 마
지막 한 주간과 6월 첫째 주일을 온 교회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예수 제자로서, 청지기로써 선
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구원의 밑알이 되어 하나
님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쓰임 받게 하려는 데 의의
가 있습니다. 특히 웨슬리 개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
한 성화와 사회구원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5월 24일
을 전후로 지키는 웨슬리 회심주간과 6월 첫 주일에
지키는 평신도주일을 연계시켜 회심의 체험을 통하
여 사회구원을 위한 헌신 봉사의 계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
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
하는 평신도의 생일입니다.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주최 :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6월 1일(월)

부르심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

기도

사람의 땅 그 죽음의 그늘에 저희들 앉아 있을 때 측은히 여기사 부르셨나이다. 돼지와 함께 먹고 마실 때 저희를 부르셨나이다. 먼지 중에 있을 때 등불 들고 허리 굽혀 저희를 부르셨나이다. 길 잃은 양으로 아굴 골짜기 헤맬 때 저희를 부르셨나이다. 잠들어 있을 때 새벽이슬 맞으며 영혼의 문 밖에서 저희 이름 부르셨나이다. 주여! 당신께서는 전심으로 저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셨나이다.

그 부르심으로 인해 저희의 영혼 깨어나 그물과 배 버리고 떠났나이다. 삼일 길 걸어 세례의 구름과 불기둥 만나고 이제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나이다. 세례를 통한 당신의 부르심으로 인해 저희들 이 죽음의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맛보며 살게 되었나이다. 이 일로 인해 당신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6월 2일(화)

옷을 벗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로마서 13:14)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마태복음 22:12)

기도

주님! 세상이 입혀주었고 저희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옷들과 장신구들을 세례를 통해 다 벗기셨나이다. 우리의 육체적 자랑, 교만, 세상이 내게 매겨 준 삶의 신분과 가격표 다 벗기셨나이다. 그 옷과 함께 주어졌던 거짓 기쁨과 슬픔, 근거 없는 자랑과 열등감 다 벗기셨나이다. 심판의 불 견디지 못하고 영생으로 가는 길 될 수 없는 모든 것들 다 벗기셨나이다. 죽음의 모양과 향 가려주고 거짓 위로를 주었던 수의 다 벗기셨나이다.

그리고 저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히셨나이다. 양털보다 정한 그리스도로 저희를 입히셨나이다. 첫 창조의 날에 그러하셨듯 그리스도를 예복으로 입은 저희들 보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당신 나라 함께 거니셨으며 저희를 성찬상에 초대하고 앉히사 당신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셨나이다. 세례를 통해 행하신 이 놀랍고 기이한 사역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3일(수)

마귀 부인^{否認}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3)

기도

주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신 후 세상을 섬기는 사역 시작하셨나이다. 그때 마귀가 광야에서 떡, 기적,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힘을 구원의 길로 삼으라 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시험했나이다. 그분이 십자가 죽음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나려 할 때 베드로를 통해 그 길을 부인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시험했나이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는 대중의 입을 빌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함으로써 그분을 시험했나이다.

주님!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저희에게도 그리스도를 시험하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나이다. 마귀를 분별하고 쫓아 내시던 아들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 위에 서 있게 하옵소서. 그분의 십자가에 끝까지 달려 있어 그분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4일(목)

그리스도를 좇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마가복음 2:14)

기도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동일한 본체이시나 사랑으로 자기를 비워 저희의 썩어질 몸을 입으셨나이다. 그리고 그 죽음의 몸으로 눈 먼 자와 문둥병자를 치유하셨나이다. 또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으며, 귀신들린 자를 정하게 하시고, 오천 명을 먹이셨나이다. 아버지,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사랑의 삶을 통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복음을 확증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당신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며 자신이 아니 고서는 누구도 당신께 갈 자가 없다 하셨나이다. 하오니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시는 은총으로 저희들 능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거룩한 사랑의 길 걷게 하시고 저희의 몸 영화롭게 되어 당신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